

### 이통사 추석 도우미정보 서비스

을 추석 서울~광주를 오가는 데는 승용차 기준 귀성 7시간, 귀경 7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귀성길 차 안에서 짜증을 낸다고 막힌 도로가 뿔뿔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다.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고향 가는 길'을 즐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휴대 전화를 잘 살펴보면 막히는 차 안에서 이용가능한 서비스와 콘텐츠가 의외로 많다.

## 휴대폰 열면 고향가는 길 뚫려요

◇출발 전 교통 정보는 기본=길 위에서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모든 귀성객들의 바람이다.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다.

SK텔레콤 가입자들은, '네이트 교통정보'와 '추석 교통 알람이'를 이용하면 된다. 도로별로 교통상황을 살펴, 빨리 갈 수 있는 길과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찾아준다. 교통 알람이는 출발 일과 시간을 입력하면, 해당 시간에 맞춰 한 시간 간격으로 가 고자 하는 길의 교통상황을 문자로 알려준다. KTF의 '방방곡 곡 길찾기' 서비스도 자신이 있는 위치의 도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KTF의 '주유소위치정보' 서비스는 자신의 위치에서 가깝고 싼 주유소·주차장·세차장에 대한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SKT의 ERS서비스(Emergency Road Service)로는 차량 운행 중 사고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버튼만 누르면 신속하게 NATE 드라이브 서비스와 접속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을 통한 위치 확인이 이뤄져 고객이 위치를 몰라도 정확히 출동한다.



휴대 전화를 살펴보면 추석 연휴 막히는 차 안에서 이용할만한 서비스가 많다. 이통사들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 교통정보·게임·노래방까지 이용할 수 있다.

### 지루할 땐 노래방·게임으로 해소 깜빡한 선물 '모바일 상품권'으로

◇모바일 엔터테인먼트=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면 모바일 노래방, 게임을 좋아하면 모바일 게임, 책 읽기를 좋아하면 전자책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SKT는 고스톱 게임을 비롯, '물가에 뿔뿔이 IQ', '미니게임전국2', '슈퍼액션 히어로' 등이 이용할만하다고 추천했다. 다운로드당 2천500원~3천원의 정보 이용료를 내야 한다.

KTF와 LGT도 모바일게임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책도 무협·추리·연애·베스트셀러 요약본 등 다양하게 제공된다.

◇선물 준비 못했는데=SK텔레콤, KTF 등은 휴대전화로 상품권을 사고 선물도 하는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를 하고 있다.

선물 받은 상품권은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에서 인증을 받은 뒤 상품권으로 바꿔 쓸 수 있다. SKT의 경우 '네이트에 접속-문세학습에메소핑-에매·상품권·상품권'으로 접속하거나 '\* \* 70'을 누르면 된다.

'디지털 선물'은 감각적인 선물이다. 그냥 넘어가기엔 아깝고 돈은 없을 때라면 생각해 볼 수 있다. '갈비·한과·과일·꽃감 세트 등 관련 사진을 문자 메시지와 함께 전송하는 서비스, 장난스러워 보이지만 마음이라도 표현할 수 있다.

휴대 전화로 지루함을 달래면 어느새 고향에 도착한다. 문제는 요금. 모든 이용 서비스와 콘텐츠마다 서비스 이용료, 정보 이용료, 데이터통신료 등이 붙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뚝뚝해진 Navi, 뭘로 살까?

〈내비게이션〉

### 업데이트 방법 우선 고려...화면 해상도도 챙겨야 DMB방송·MP3파일·게임 등 부가서비스 풍성

김태민(30)씨는 최근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구입한 뒤 '길치'로 소문난 꼬리표를 떼었다.

초행길에도 목적지까지 어려움 없이 찾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 DMB 방송 수신을 비롯, MP3파일·동영상 재생(PMP), 게임 서비스 기능까지 들어 있어 여간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다.

을 추석은 최장 9일의 황금 연휴다. 성묘를 하고 고향을 방문한 뒤에 도 이곳 저곳 다닐만한 시간 여유가 충분하다. 이 때문인지 추석을 앞두고 내비게이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진화하는 내비게이션=내비게이션은 운전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고 빨리 찾아가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소형 장비.

특히 대부분 모델이 안전 운행을 위해 도로에 설치된 과속 감시 카메라 경보음을 미리 알려주도록 돼 있다.

요즘 제품은 단순히 길 안내에 그치지 않는다. 차 안에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운전자들을 위해 MP3 파일 재생·DMB 방송 수신·동영상 재생(PMP)·게임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 기능까지 풍성하다.

◇업데이트 방법을 먼저 따져라



DMB 방송 수신, MP3 파일 재생, 동영상 재생 등의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요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길 안내다. 따라서 지도 업그레이드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국의 도로 정보는 신규 도로 증설이나 일반통행 도로 개설 등으로 수시로 바뀐다. 당연히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줘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지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업데이트 하는데 추가 비용이 들거나 한다. 이 때문에 업체에서 자주 업데이트해주는지,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턱대고 초기 구입비용이 싸다고 해서 구입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휴대 가능 여부·화면 해상도도 직접 챙겨라=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을 주행 중 계속 들여다보아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장을 찾아 펼쳐지는 지도 화면을 보고 고르는 것이 낫다. 터치 스크린이 낫는지, 화면 해상도는 충분한지, 데이터 저장 용량은 충분한 지 등이다.

최근 내비게이션은 설치가 간편해졌다. 제품 바닥을 운전석 앞 유리 아래쪽이나 앞 유리에 고정시키고 다른 한 쪽의 연결된 전원선을 운전석 시가쪽에 꼽으면 되는 식이다.

반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제품도 있어 따져봐야 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정보 TIP

#### 소니 MP3, 칼로리·운동량 측정

MP3플레이어로 칼로리·운동량도 측정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다.

소니코리아가 선보인 NW-S2000시리즈는 고음질의 음악 재생을 비롯, 운동 중에 칼로리 소모량, 운동량 등의 측정이 가능한 것이 특징.

특히 내장된 'G-센서'는 사전에 사용자가 입력해둔 키와 몸무게를 바탕으로 흔들림의 정도를 고려, 칼로리 소비량을 kcal 기준으로 나타내고, 운동거리도 km나 걸음 수로 표시해 준다.

원통형 디자인으로 팔이나 다리에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메탈 소재를 사용해 세련된 느낌을 주며 생활 필수 기능도 내장했다.



#### KT "집 전화 쓰고 인테리어 바꾸고"

집 전화를 많이 쓰면 집 안 인테리어도 바꿀 수 있다. KT는 오는 10월 14일까지 '러브 하우스 페스티벌'을 실시한다. 집 전화로 20차례 이상 통화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집 인테리어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행사.

KT는 신청자 중 1등에 해당하는 8명을 뽑아 5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한다. 2등 100명에게는 집 전화기(안(Ann))를, 3등 200명에게는 'KT포인트 2만 점'을 받을 수 있다.

러브하우스 페스티벌 안내는 KT홈페이지(www.kt.co.kr)를 통해 볼 수 있고, 당첨자는 오는 10월 23일 K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a medical clinic. Text includes: '정신과 증상이 사라집니다', '세계가 인정된 남성 의료기', '3분이면 수술이나 약없이 후복!', '089-333-3202'.

Advertisement for '다운다운물류유통' (Down Down Logistics). Text includes: '식당재료에서 청소용품까지 다운다운에서 해결!', '찾아 오시면 가격이 저렴합니다!', '016-528-3900'.